



## 한국오리협회, 임원상견례 개최

우리 협회는 4월 25일(수), 대전 레전드호텔에서 제9·10대 임원상견례를 개최, 새로운 한국오리협회 집행부의 출범을 알렸다.

먼저, 이 날 임원상견례 행사는 전·현직 임원진의 결의가 담긴 선서로 시작되었다. 전·현직 임원진은 국내 오리산업을 대표하는 유

일무이한 생산자단체로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축산 환경 속에서 국내 오리산업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의지를 담은 '우리의 다짐'을 한 목소리로 제창, 오리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선서 이후에는 지난 3년간 오리 산업과 협회발전에 이바지한 제9대 임원진에 대한 공로패 수여식



을 갖고 그간의 노력과 수고에 공로를 기렸다. 공로패 수여식이 끝난 뒤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임원진의 간략한 인사말이 이어졌다.

제10대 임원진은 “오리업계가 힘든 시기 임원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거운 것이 사실이지만 불황타개를 위해 오리산업 종사자들을 대표해 열심히 뛰겠다.”며, “국내 오리산업의 질적 성장 발전을 이루는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모두 입을 모아 말했다.

지난 임기에 이어 한국오리협회장을 연임하게 된 이창호 회장은 “회장직을 수행함에 있어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현안들이 많지만 우선순위를 정하여 차근차근 하나씩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임기 동안 협회에서 중점 추진코자 하는 업무방향을 설명한 후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원칙을 중시하여 일관성 있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실천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12년은 임원진이 새롭게 구성된 한편 한국오리협회 창립20주년을 맞은 해로 금년은 협회입장에

서 특별하다. 이러한 배경들이 동기부여가 돼 추진하는 사업들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여 오리산업에 좋은 영향으로 돌아오길 기대할 수 있는 반면 남겨진 중요한 과제들이 많다. 오리산업이 성장에서 발전으로 가는 과도기이기에 관련 제도 및 정책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다. 더욱이 정부에서 중국 및 베트남, 기타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오리산업은 괄목할만한 눈부신 성장을 해왔다. 그 이면에는 오리가 기타가축으로 분류돼 사람들의 관심이 적던 시절부터 맨땅에 헤딩하기 식으로 국내 오리산업의 기반을 깔고 닦은 고문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오리산업의 발전에 있어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시기인 만큼 협회는 그간 선배들이 마련해 놓은 비옥한 땅에 현 임원진과 함께 튼튼한 구조물을 세우고, 꽃을 피우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한편 임원상견례가 열린 4월 25일(수)은 상견례 행사 이후 제2회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 한국오리협회 제10대 임원진

<b>이창호</b> 회장	<b>송종하</b> 경기도지회장(경기 여주군 · 농장 대표)
<b>정정우</b> 사육분과위원장 겸 부회장 (전남 보성군 · 죽림농장 대표)	<b>정기현</b> 충북도지회장(충북 음성군 · 짱구오리농장 대표)
<b>마낙중</b> 부화분과위원장 겸 부회장(충북 진천군 · 원천오리농장 대표)	<b>조상기</b> 충남도지회장(충남 공주시 · 조우리 대표)
<b>이세중</b> 계열유통분과위원장 겸 부회장(전북 정읍시 · (주)삼호유황오리 대표)	<b>배종울</b> 전북도지회장(전북 고창군 · 야곱농장 대표)
<b>윤영호</b> 토종오리분과위원장 겸 부회장(전남 장성군 · 영성영농조합법인 대표)	<b>마광하</b> 광주전남도지회장(전남 영암군 · 농장 대표)
<b>이우진</b> 감사(충북 진천군 · (주)주원산오리 대표)	<b>한임근</b> 영남도지회장(경남 진주시 · 한빛농장 대표)
<b>민종환</b> 감사(전남 나주시 · 가나안농장 대표)	<b>김상덕</b> 이사(전남 함평군 · 성실농장 대표)
	<b>오점근</b> 이사(전남 나주시 · 경주부화장 대표)
	<b>홍성대</b> 이사(충남 천안시 · 영양축산 대표)
	<b>문순금</b> 이사(전북 남원시 · (주)팜덕 대표)
	<b>이춘길</b> 이사(전북 익산시 · 농업법인 유성농산(주) 대표)

### ‘우리의 다짐’

우리는 국내 오리산업을 대표하는 유일무이한 생산자 단체의 구성원이자 산업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축산업 환경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국내 오리산업을 일으켜 세우고 더 나아가 명품 오리고기를 생산하는 세계속의 오리강국으로 성장시키고자 오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엄숙히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가 생산하는 오리고기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 식량자원임을 깨닫고 가장 안전하며 가장 깨끗하고 가장 좋은 품질의 오리고기 생산에 정진할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한국오리협회를 중심으로 화합과 단결로서 오리업계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 향상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국내 오리산업을 위한 상생과 협력 · 양보를 미덕으로 삼아 궁극적인 오리산업 선진화 도모에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중국 등 세계무역시장 개방화 바람에 맞서 고품질의 국내산 오리고기의 우수성을 강조, 수입산 저급 오리고기와의 차별화를 도모하는 한편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경주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 축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높아지는 오리산업에 정부와 관계기관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며 주요 축종이자 국가의 효자산업으로서 국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기울인다.